

 <p>교육부</p>	<p>보도자료</p> <p>2020. 7. 20.(월) 배포</p>	<p>힘내라 대한민국</p>
--	--	-----------------

**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
제2차 권역별 포럼 및 시도교육감 호남권 간담회 개최**

- ◆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인 순천시 방문, 코로나19 이후 미래 교육을 위한 지자체-교육청 협력 방안 모색
- ◆ 호남권 교육감과 교육격차 해소 방안 및 지역 현안 등 협의

□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7월 21일(화) 14시 순천만국제 습지센터에서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「제2차 권역별 포럼 및 시도교육감 호남권 간담회」를 개최한다.

○ 이번 2차 포럼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에서, 지역의 우수 협력사례를 공유하고 미래교육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다.

□ 전라남도 순천시는 ‘2020년 교육부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*’로 선정된 지역으로, 지역교육 현안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민·관·학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협력사례를 만들어왔다.

* 기존 혁신교육지구의 성과 확산 및 우수모델 개발을 위해 2020년 교육부 사업 공모를 통해 11개 지구 선정·운영 중(붙임3 참조)

○ 또한, 코로나19 이후에도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청-지자체가 협력하여 학교 방역소독과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, 마을 돌봄팀을 구성하여 마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래놀이, 수학놀이 등 자체적인 돌봄 프로그램을 실시해왔다.

□ 1부에서는 실무담당자들이 순천 민·관·학 거버넌스 운영 사례, 코로나 시대 학교와 마을이 함께 키우는 순천인(人),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든 동천마을교육과정을 주제로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전달할 예정이다.

< 순천 교육청-지자체 협력사례 발표 내용(요약) >

- ① **(순천 민·관·학 거버넌스)**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을 위해 민·관·학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매월 정담회를 개최, 지역교육 문제를 실제적으로 논의하고 결정
- ② **(학교 마을이 함께 키우는 순천인)** 지역 연계 교육프로그램, 코로나를 이기는 마을 돌봄 프로젝트, 학교 방역 지원, 청소년 자치 활성화 등 사례 창출
- ③ **(동천마을교육과정)** 마을교사와 학교교사가 함께 지역의 특성을 담은 교육 과정을 만들고자 순천의 자연환경을 담은 동천마을교육과정과 워크북 제작·배포

○ 이어지는 2부 토론에서는 순천의 열린 민·관·학 정례 협의회의인 ‘정담회’ 형식으로 ‘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청-지자체 협력방안’에 대하여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.

* 민·관·학이 모두 참여하여 지역교육력 회복을 위한 실제적인 문제를 논의하고, 이를 바탕으로 실행계획을 세워나가는 순천의 열린 실천공동체

【 호남권 시도교육감 간담회 】

□ 호남권 교육감 간담회는 순천생태문화교육원에서 개최되며, 장휘국 광주교육감, 김승환 전북교육감, 장석웅 전남교육감, 이석문 제주교육감이 참석한다.

○ 간담회에서는 교육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지역별 대책 및 사례를 공유하고,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시도교육감들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.

○ 아울러, 호남권의 지역 현안이나 각 시도교육청별 주요 제안 사항 등을 듣고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.

○ 또한, 2학기 준비와 대책, 교육환경 변화와 교원정책, 한국판 뉴딜

정책(교육분야)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,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방교육재정 등에 관련한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.

-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“순천시의 사례처럼,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자체와 교육청, 학교와 마을은 스스로 상생하며 다양한 협력사례를 만들어 왔다.”라고 강조하고,
 - “협력 우수사례를 널리 알려 지역의 교육공동체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, 미래 교육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.”라고 밝힐 예정이다.

